

북한개발소식

2026 JUN

06

통권 248호

추모의 글

고(故) 김성태 이사장님을 추모하며

이달의 주제

김주애와 4대 세습, 그리고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6화)

북한뉴스

“남으로 韓과 접해”...

北,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2국가’ 개헌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6 JUN

이달의 주제 :

김주애와 4대 세습, 그리고 우리의 기도

- 추모의 글 **01** 고(故) 김성태 이사장님을 추모하며
- 권두칼럼 **02** 김주애와 4대 세습, 그리고 우리의 기도
- 칼럼_1 **09** 정성장 _ 김주애 후계 구도의 진전과 북한 체제의 미래
- 칼럼_2 **14** 박영자 _ 김주애와 4대 세습
- 칼럼_3 **20** 박민주 _ '김주애'선전, 행간 읽기: 은폐와 시선교란의 이중 전략
- 칼럼_4 **28** 최 설 _ 기획된 아이콘, 김주애로 읽는 북한
- 탈북민 수기 **34**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6화)
- 북한뉴스 **37** “남으로 韓과 접해”... 北,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2국가’ 개헌 외
- 북한 기도 제목 **40**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



추모의 글

고(故) 김성태 이사장님을 추모하며



평소 한국오픈도어선교회와 고(故) 김성태 이사장님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신 후원자님께 무거운 마음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본회 이사장으로 섬기셨던 김성태 총신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지난 5월 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995년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신 김성태 이사장님은 본회 대표 및 제3대 이사장으로 헌신하며 왕성히 활동하셨습니다. 특히 북한 지하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역을 선교하고 지원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또한, 이사장님께서서는 예정 합동 교단 최초로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총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선교사와 후학을 양성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소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라디오 방송 사역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셨을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의 현장을 지키며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이사장님께서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이사장님께서서는 더 이상 이 땅에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김주애와 4대 세습, 그리고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2026년 1월, 신년을 맞아 금수산 태양 궁전을 참배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사진의 구도가 평소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참배 일행의 정중앙에 김정은이 아닌 김주애가 위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김주애를 단순한 김정은의 딸을 넘어 다음 후계자 후보로까지 주목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김주애는 등장부터 세간의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가 김주애인지 아닌지, 북한 사회에서의 젊은 여성 지도자의 가능성, 기정사실화되는 4대 세습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슈가 김주애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김주애의 등장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김주애의 등장

김주애라는 이름이 우리 언론을 통해 자주 오르내리고는 있지만, 정작 김주애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다. ‘김주애’라는 이름도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 김주애의 이름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3년 북한을 방문한 데니스 로드만을 통해서였다. 당시 로드만은 “저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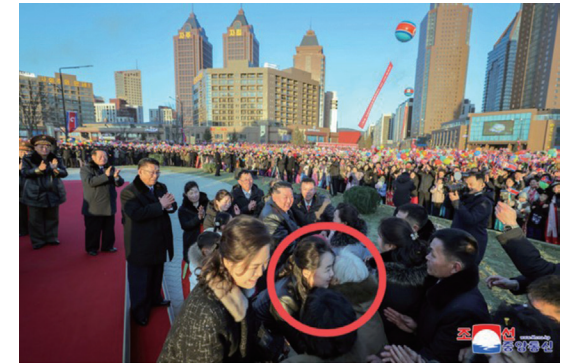
기 주애를 안고 리 씨와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좋은 아빠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저에게 12월에 보자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¹⁾ 이후 탈북 외교관 류현우씨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장인이자 김정일과 김정은의 자금을 관리하며 수십 년간 보좌한 일명 금고지기, 39호실 실장 전일춘을 통해 김정은이 “집에 들어가면 우리 주애가 막 기어 나와 내 품에 안기는데 내가 포기하면 앞으로 저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나 싶어 온 정신을 가다듬지”, “주애는 나에게 포도당이야”라며 김주애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한다.²⁾

김주애가 대중들 앞에 모습을 처음 드러낸 것은 2022년 11월 18일, 화성-17형 시험 발사 현장이었다. 이후 김주애는 여러 군사 시험 및 각종 대중 집회에서 모습을 드러내 왔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할 때도 김주애가 동행했다. 올 2월에는 김정은과 함께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여하여 평양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께안거나 환호를 받기도 하였다.

김주애의 대외 노출이 늘어나면서 호칭도 점차 격상되고 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경하는 자제분’, ‘조선의 섯별 여장군’ 등으로 점차 대우가 높아지더니 2024년 3월 16일 보도에서는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었다. 북한에서 ‘향도’는 “혁명투쟁에서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최고지도자와 그 후계자에게만 쓰이는 단어이다.³⁾ 비록 일회성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김주애의 입지와 위상을 확인시켜 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후계자 내정이 확실시되는 김주애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낸 초기에는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회의적인 의견을 가졌다. 아직은 젊은 김정은이 벌써



〈올 2월 16일,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애가 입주민들을 께안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캡처)〉

1) “北 김정은-리철주 자녀는 몇 명?” 노컷뉴스 (2013.09.09.), <<https://www.nocutnews.co.kr/news/1096800>>
2) “김정은에게 주애는 포도당” ... 탈북외교관 류현우가 전한 일화, 조선일보 (2025.10.3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5/10/30/OZ2HBYCNMJDGHLHHC22IGPXT7Q/>
3) 北 김주애에 처음 사용한 표현 ‘향도’ 무슨 뜻?, 동아일보 (2024.03.1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318/124022384/2>>

부터 후계자를 생각할 시기가 아닐 것인 데다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심한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로서 여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 김정은보다도 더 주목받는 구도가 여러 차례 확인되면서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된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자로 판단하고 후계 서사를 구축하는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⁴⁾

북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북한의 후계자는 혈통이 아닌 인물 본위로 선발하고, 수령과 같은 세대가 아닌 다음 세 세대를 대표해야 하며, 수령의 생존 시기에 선정되어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령의 후계자는 이를 계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우상화 선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새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하므로 현 지도자와 동 세대는 후계자가 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출중한 인물을 지목하고 키울 책임이 수령에게 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수령의 최측근에서 동행하고 보좌하는, 새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면 그가 후계자일 가능성이 높다.⁵⁾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보면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 후보는 김주애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계자로 내정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후계 체계 구축은 ‘후계자 내정 및 후계수업’ → ‘후계자의 대내적 공식화’ → ‘후계자의 대외적 공식화’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⁶⁾ 여기서 내정 단계에서는 후계자임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내정된 후계자가 후계수업을 받고, 당내에서 핵심 직책을 맡으면서 간부들이 그를 후계자로 ‘추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 김주애는 1단계, ‘후계자 내정 및 후계수업’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김주애가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김주애 후계 체제 구축은 계속 진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⁷⁾

김주애의 등장과 여성 지도자의 가능성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

은 일이다. 북한은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부장적일 뿐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지도자를 아버지로 받들도록 주민들을 교육해왔다. 그 속에서 여성에게는 리더보다는 조력자 내지 내조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강반석, 김정숙 등 여성들이 우상화되는 일은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그들의 업적도 지도자를 잘 보필하고 내조했다는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만큼 아직 어린 여성인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기란 북한의 사회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주애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가장 먼저는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가 점차 향상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배급 경제가 위축되고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직장 매인 남성과는 달리 장마당의 중심으로 활동해 온 여성들의 경제력이 증진되고,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와 발언권의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북한 사회에서 김주애의 등장을 더 이상 어색하게만 보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 당국도 지속적으로 여성들을 띄워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여성 친화적 리더십을 보여왔다. 최선희의 외무상 기용, 리설주의 외교 무대 동행, 김여정의 대남·대외 메시지 수행은 모두 여성 인물의 가시성을 높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미디어나 행사에서도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조가 보인다. 북한 매체에서는 여성 전투기 조종사나 무궤도전차운전사 등 남성이 주류를 이뤘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보도를 자주 방영하고 있다.⁸⁾ 북한에서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국제부녀절(3월 8일)’의 올해(2026년) 행사에는 김정은이 직접 김주애, 리설주와 함께 참여하고 기념 연설도 진행하였는데, 김정은이 국제부녀절 행사에 참여한 것은 집권 초기인 2012년 한 차례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김주애로의 후계 체제 구축에 대한 고려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⁹⁾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김정은의 행보 등을 종합해볼 때, 여전히 북한의 사회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주애가 후계가 될 수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국정원 “김주애, 일부 시책에 의견 내…후계 내정 단계 판단”, 연합뉴스 (2026.02.12.),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2101900001>>

5) 엄현숙 (2023), “북한의 ‘후계자론’과 김주애 공개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제1호, pp.14-16.

6) 정성장 (2024), “김주애의 북한 내 위상과 4대 권력세습 전망”, 세종정책브리프 No.2024-07 (2024.07.01.), pp. 7-12.

7) [단독] 김정은 딸, ‘주애’ 아닌 ‘주혜’ 정부, 미사일 총국장 역할할 가능성 주시, 조선일보 (2026.02.23.),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6/02/23/4AX4HVH5INEE5PTAF6JL3WC4GQ/>

8) ‘여성 띄우기’ 나선 북한 매체…김주애 후계자 토대 작업?, 매일경제 (2026.02.17.), <<https://www.mk.co.kr/news/world/11964173>>

9) 김정은 “여성은 혁명의 기둥” 국제부녀절 첫 연설…주애와 손잡고 관람, 경향신문 (2026.03.0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90952001>>

김주애의 등장이 제기하는 의문과 우려

김주애의 등장하면서 주요 언론 미디어는 김주애는 누구인지, 그가 다음 후계자인지 등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김주애의 등장은 이러한 가십성 보도를 넘어 우리에게 북한 지도부의 방향성에 관한 여러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

의문점들로는 여성으로의 권력 승계가 기존에 북한이 구축해 온 지도자에 대한 백두 혈통의 서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목된다. 앞서 언급된, 북한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성 지도자의 등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함께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경우 그다음 후계자는 같은 기존 백두 혈통이 아닌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¹⁰⁾ 이는 백두 혈통 우상화와 백두 혈통에 따른 권력 승계가 당연시되는 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자신의 딸에게 후계 수업을 매우 일찍 시작한 이유도 의문스럽다. 물론 김정은 본인이 충분한 후계 수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김정일의 죽음으로 권력을 이양받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딸에게 일찍부터 후계 수업을 시작한 것일 수 있다.¹¹⁾ 그럼에도 김주애의 첫 등장 당시 추정 나이가 겨우 10살 어간에 불과했고, 김정은의 나이 역시 불과 30대 후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 이례적이라 볼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와 같은 내부적 이슈가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우려되는 점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4대 세습 시도 그 자체를 꼽을 수 있다.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북한이 4대 세습 여부가 아닌 김주애가 다음 후계자인가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어느 순간부터 이미 북한의 4대 세습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력 세습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적이다. 특히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상화 작업은, 또다른 박해와 억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김주애의 행보가 북한의 핵무력 세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김주애는 그 첫등장부터 미사일 발사 시험장이었고, 2022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3년간 식별된 김주애의 공개 활동 46

건 중 군사분야가 29건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¹²⁾ 현재 언론을 통해 추정되는 향후 유력한 보직도 미사일 총국장으로 추정될 정도로 김주애는 북한의 핵무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아직 어린 미성년 여성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참관하고, 이것이 지속적인 행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김주애를 핵무력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김주애의 행보는, 핵무기를 통해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¹³⁾

이에 대해 미래세대는 지도자가 책임져주는 안전에 충성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¹⁴⁾ 북한 지도부가 앞으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음세대로까지 세습하겠다는 의지를 김주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요소일 것이다.



〈2022년 11월 18일, 화성 17형 시험발사 현지지도에 아버지 김정은과 동행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

우리의 기도

김주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경은 복잡하다.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써, 또 젊은 세대로서 공포정치 대신 유화적이고 친대중적인 행보의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핵무력에 의지한 세습 체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기존 북한 사회의 문법으로는 여전히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젊은 여성으로의 세습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과 반발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한편으로는 김주애의 유화적인 이미지를 적극 선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더욱 가혹한 통제와 사상 개조에 힘쓸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특유의 지도자에 대한 종교적 숭배를 유지하기 위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박해 기조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왕조와 같은 권력과 세습을 꿈꾸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세습적 체계는 일정 시점을 지나면 그 힘이 약해지거나 붕괴하곤 했다. 아무리 철저한 세습 체제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체제가 현대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10) 박영자, “북한 김주애는 4대 세습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월간 북한 2026년 2월호, pp. 14-15.

11) 이상근 (2026), “최근 김주애 공개활동 동향과 정치적 의미”, 국가안전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제779호 (2026.01.07), pp. 5-6.

12) 고유환 (2026), “북한의 김주애 후계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김주애는 한반도 절반의 또 하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월간 북한 2025년 11월호, p. 21.

13) 백승국, 김동욱 (2024), “북한의 권력세습과 재연된 후계자 논쟁”,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10, No.1 (2024), pp. 21-22.

14) 박민주, 박해주 (2023), “시물라크로로서의 리설주-김주애: 은폐와 시선교란의 북한적 기호학”,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2023.08.31), pp. 339-367.

국제 정세 속에서 장기적으로 존속되리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김주애로의 세습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그다음 세대는 백두혈통으로의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따라 기존 백두혈통 우상화에도 모종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김주애와 북한의 행보에 대한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김주애의 등장과 4대 세습 가능성을 바라보며, 최악의 파급력이 3~4대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자랐으나 도리어 박해자가 된 김일성의 행보를, 그의 아들과 손자인 김정일, 김정은 역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물림되는 최악은 과거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그 거듭된 최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셨는지를 되짚어볼 때, 마음속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

아직 4대 세습과 김주애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 불확실한 점들이 많다. 다만 어린 자녀를 벌써부터 대중 앞에 세우며 후계 수업에 나서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가 느끼는 깊은 불안감을 보여주는 듯하다. 비록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 내정자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북한의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 북한 지도부가 무리한 권력 세습에 매달리기보다는 회개를 통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민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 평화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북한 땅이 진정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자. 

칼럼 1

김주애 후계 구도의 진전과 북한 체제의 미래

조기 공개 의도와 핵세습·우상화·종교 탄압의 장기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1. 김정은은 왜 어린 김주애를 조기에 공개했는가

첫째, 김정은은 자신이 겪었던 ‘짧은 후계 수업’의 아픈 경험을 김주애에게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김정은의 이모부 리강을 2021년 3월에 미국에서 직접 만나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김정은은 매우 어린 나이인 만 8세 생일날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인사들은 김정일의 소수 측근에 불과했고, 김정은은 김정일이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진 2008년부터 서둘러 후계 수업을 받았다. 따라서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나이·경륜·군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 김주애는 만 9세 때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현장, 열병식, 군수공장, 해군 구축함 진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사격·전차훈련 장면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엘리트와 주민이 장기간에 걸쳐 김주애를 ‘미래 지도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조기 정치사회화 전략이다.

둘째,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북한 내부의 거부감을 줄이려는 의도가 강하다. 북한은 ‘여성 최고지도자’를 경험한 적이 없고, 노동당·군대·보위기관 중심의 권력구조는 여전히 남성 중심성이 강하다. 김주애가 어두운 색조의 수트, 김정은과 유사한 가족 재킷, 사격과 전차 조종 장면을 통해 점차 ‘군사국가를 계승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상’으로 연출되는 것은 이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셋째, 김주애 공개는 핵무력의 세대 계승을 시각화한다. 김주애의 첫 공개

무대가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 현장이었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사랑하는 딸’과 전략핵무기를 한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은 핵무력이 단지 현 지도자의 업적이 아니라 백두혈통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국가적 유산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넷째, 김정은은 김주애를 통해 체제의 장기성과 권력승계의 예측 가능성을 과시하고 있다. 세습 체제에서 후계 불확실성은 엘리트 균열과 외부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 김주애의 조기 공개는 김정은이 아직 젊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세대의 권력 축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권력투쟁 가능성을 낮추고 대내외에 ‘김정은 이후에도 체제는 계속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

2. 김주애의 후계자 지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평가

이러한 조기 공개 전략의 효과는 한국 정보기관의 평가 변화에서도 단계적으로 확인된다. 김주애에 대한 국정원의 공개 평가는 단계적으로 상승했다. 2022년 11월에는 ICBM 발사 현장 동행 인물을 “둘째 김주애”로 판단하는 신원 확인 수준이었고,¹⁾ 2023년에는 “후계자 의미는 아니다” 또는 “현 단계에서 후계자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현재로서는 유력한 후계자”, 2024년 7월 “후계자 수업”, 2025년 9월 “혁명서사 확보” 평가를 거쳐, 2026년 2월에는 “후계 내정 단계”라는 판단으로 이동했다.²⁾

2026년 2월 평가는 질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당시 국정원 브리핑에 따르면, 김주애는 일부 정책 문제에 의견을 내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사실상 2인자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동행이나 후계 후보군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넘어, 내부 권력구조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의미다.

2026년 4월 6일 국정원 평가는 더 직접적이었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신형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장면을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로 보고,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불안감을 희석하고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연출로 분석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들의 질의에 김주애를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답했고, 이 판단이 단순한 정황이 아니라 “신빙성 있는 첩보”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³⁾

다만 현재 단계는 북한의 공식 후계자 선포와 동일하지는 않다. 김주애에게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서국 등의 공식 직책이 부여되었거나, 독자 발언·단독 공개활동·명시적 후계 호칭이 제도화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공식 선포 이전의 후계 수업 단계’ 또는 ‘후계자로서의 위상 확보 단계’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보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후계 구도가 핵·군사 상징과 결합되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외정책에 이미 현실적 함의를 갖는다.



〈2026년 4월 6일 신형 탱크 위에 걸터앉은 김정은 위원장 바로 아래 조종석에 김주애가 탱크를 모는 모습, 국정원은 이를 과거 김 위원장이 후계자 시절 모습을 ‘오마주’함으로써 여성후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3. 대외정책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김주애 후계 구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발점부터 핵·미사일·군사 상징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주애는 경제개혁이나 민생 개선의 상징으로 먼저 등장한 것이 아니라 ICBM 발사 현장, 열병식, 군수공장, 해군력 강화, 사격·전차훈련 등 군사국가의 핵심 무대에서 부각되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정통성이 ‘핵보유국 북한의 차세대 지도자’라는 이미지 위에 구축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김주애 세습이 북한의 대외정책을 온건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2026년 2월에 개최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국가핵무력 강화, 핵무기 수 증강, 핵운용수단과 활용공간 확대, 통합핵위기대응체계 운용시험, 해군 수상·수중 전력의 핵무장화, AI·무인공격체계와 정찰위성 개발 등을 향후 핵심 과업으로 제시했다. 김주애가 이 노선의 상징적 계승자로 부각될수록 핵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와 핵전력 고도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⁴⁾

남북 관계에서도 김주애 후계는 강경 노선의 장기화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항구적 노선으로 재확인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선전과 제도를 재편해 왔다. 후계자

1) 김정은을 직접 만난 다수의 외국인들 증언을 종합하면 김주애 위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초기에 김주애를 김정은의 둘째 아이로 판단한 것은 정보기관의 대표적인 분석 실패 사례 중 하나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성장,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2024), 281~330쪽 참조.

2) 김연정·조다운, “국정원 '김주애, 일부 시책에 의견 내...'후계 내정 단계' 판단”, 『연합뉴스』, 2026.2.12.

3) 김연정·조다운, “이종석 “김주애, 후계자로 봐도 돼...신빙성 있는 첩보 근거 판단”(종합2보)”, 『연합뉴스』, 2026.4.6.

4) 정성장,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세종정책브리프』, No. 2026-13 (2026.03.16.) 참조.



〈2025년 9월 2일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은 위원장 뒤에 동행한 김주애〉

는 기존 지도자의 핵심 업적을 부정하면서 등장하기 어렵다. 김정은의 최대 업적이 핵무력 완성, 전술핵 운용체계 구축, 대남 적대 노선 제도화로 포장되고 있다면, 김주애는 이를 수정하기보다 ‘완성하고 계승할 인물’로 선전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연대와 대미 조건부 대화를 병행하는 김정은식 전략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주애가 2025년 김정은의 방중에 동행했다는 사실은 후계 서사가 이미 국내 무

대를 넘어 대외 대표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주애 세습이 진전될수록 북한은 ‘노선과 체제의 장기 지속성’을 강조할 것이다.

4. 북한 주민 인권상황에 미칠 영향: 억압체제의 장기화 위험

김주애가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억압 체제는 지도자의 성별보다 유일영도체제, 노동당 조직통제, 국가정보국(국가보위성의 새 이름)·사회안전성 감시망, 성분제, 정보통제, 정치범수용소, 공개처벌 구조에 의해 작동한다. 여성 후계자가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여성 인권, 아동 권리, 표현의 자유, 종교 자유 개선으로 자동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4대 세습의 정당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상화와 사상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김주애를 ‘백두혈통의 다음 지도자’로 수용시키려면 북한 당국은 군대, 근로단체, 청년조직, 학교교육, 선전매체를 통해 새로운 충성 서사를 주입해야 한다. 이는 외부문화 차단, 남한식 언어·문화 단속, 반동사상문화배격법류 통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5』는 북한이 2021년 이후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특별법을 통해 사형 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사형 규정이 실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⁵⁾ 기독교 박해를 포함한 종교 탄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북한의 유일영도체제가 종교를 체제 경쟁 이념으로 간주하며, 성분제상 종교인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성경 소지, 기독교 선교사 접촉,

예배 참여가 고문·강제노동·수감·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는 김주애 세습기에도 종교 자유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⁶⁾

5. 한국사회의 대응 방향

첫째, 김주애 문제를 가십이나 가족사 차원이 아니라 북한 권력승계와 국가전략 변화의 핵심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행사 유형, 동행 인물, 좌석 배치, 호칭, 사진 배열, 군부와의 거리, 독자 발언 여부, 외교 행사 동행 여부, 공식 직책 부여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김주애 공개 활동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둘째, 후계 구도 분석과 군사전략 분석을 결합해야 한다. 김주애의 후계 서사는 핵무력, 해군 핵무장화, 전술핵 운용, 대남 강경 노선과 함께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도 정보분석 차원에 머물지 말고 미사일방어·대화력전·무인기 및 대무인기 능력 강화, 핵잠재력 확보, 독자 핵억제 역량 확충과 연결되어야 한다.⁷⁾

셋째, 북한 인권과 안보를 분리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주민 희생, 정보 통제, 강제 동원, 사상 통제 위에서 추진된다.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대화의 걸림돌로만 보지 말고, 북한 체제의 본질과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 핵심 안보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외부 정보 접근권, 탈북민 강제 복송, 종교 박해 피해자 기록화를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넷째, 기독교 박해를 포함한 종교 자유 문제를 북한 인권 의제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억류 선교사 문제, 중국 내 탈북민 보호, 강제 복송 방지, 종교 박해 증언 수집과 국제 소송 가능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 사회 내부에서 초당적이고 장기적인 대북 전략 합의가 필요하다. 김주애로의 권력세습이 진전될수록 북한의 강경 노선도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대북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이 급변하면 한국의 대북 협상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김정은의 선택을 바꾸기 위한 대북 억제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⁸⁾

6) USCIRF, “North Korea 2025 Annual Report,” April 2025.

7) 이성춘 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서울: 블루앤노트, 2025) 참조.

8) 정성장,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 331~374쪽 참조.

5) 『북한인권백서 2025』, (통일연구원, 2026). 14~15쪽.

김주애와 4대 세습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문제는 ‘딸이나 아들이나’가 아니라 ‘4대 세습’이다

김정은이 2026년 1월 1일 김주애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후 김주애 후계자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김주애는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북한의 주요 무기 실험과 군 관련 현지 지도에 김정은과 동행했고, 2024~2025년에는 외교무대로, 2025년 말부터 2026년 현재에는 경제와 민생 분야로까지 공개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관심은 “김정은의 후계자가 아들이나 딸이나”, “북한처럼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에 집중되었다. 또한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 과정과 비교할 때 김주애가 아직 공식 권력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을 가능성, 김주애가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의 대외적 상징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북한의 후계자가 딸인가 아들인가’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연이은 혈족 세습, 즉 4대 세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2대 세습은 북한이 과연 인민 중시 사회주의 체제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낳았다.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이상 전후 시기에는 차기 후계 구도와 관련하여, 북한이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거나 3대 세습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했

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강행했고, 국제사회는 북한을 ‘정상 국가가 아닌 3대 세습의 독재체제’로 평가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4대 세습 관련 논의는 과거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명에서 민주주의와 인민을 내세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미래 비전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공식 담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4대 세습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4대 세습은 당연한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하에서 ‘그 후계자가 아들이나 딸이나’에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는 김정은 정권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북한이 만들어낸 프레임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김주애와 4세 세습 문제는 “딸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는가/있는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북한의 4대 세습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2. 김주애 등장 내부 배경: 김정은 수령화, 여성 역할 강화, 청년세대 포섭

김주애의 부각은 가족 공개나 후계자 홍보 차원을 넘어서 북한 내부 환경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경제위기 속에서 자력갱생 전략을 강화했고, 동시에 김정은을 수령화하는 정치 담론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대가정’ 담론도 다시 강조되었다.

김주애가 북한 공식 석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북한 매체인 노동신문, 조선녀성, 천리마 등에는 김정은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아버지’로 부각하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2023년 12월 제5차 전국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은 직접 개회사를 하며 어머니들의 역할 강화를 눈물로 호소했다. 북한 당국은 이 대회를 김정은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아버지로 높이게 된 중요한 계기로 평가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주애의 등장이 김정은 개인 우상화, 여성 역할 강화, 청년세대 포섭이라는 세 가지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배급제 붕괴 이

후 북한 남성들은 여전히 국가와 직장에 묶인 ‘전방의 전사’로 살아가야 했다. 반면 여성들은 ‘후방의 전사’로서 생계, 양육, 가사, 시장 활동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 가정 내 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발언권은 커졌다.

동시에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청년세대의 사상 이완을 우려하며 이들을 체제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했다. 김주애의 공개 등장은 미래세대, 여성, 가족, 후계, 김정은 수령화를 하나의 상징체계로 묶는 효과를 가진다. 즉 김주애는 단지 김정은의 딸이 아니라, 북한이 내부적으로 강조하려는 ‘미래’, ‘가정’, ‘충성’, ‘계승’의 정치적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3. 북한 사회 변화와 여성 후계 가능성



〈북한의 여성 엘리트 (왼쪽부터) 김여정, 현송월, 최선희〉

북한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 사회의 현실 생활세계에서는 여성, 특히 딸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에는 아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딸이 부모를 돌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탈

북민들이 일반적으로 증언하는 북한 장마당에서 말하는 “(남편은 불편) 딸은 심장, 아들은 맹장”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여성의 경제력 확대가 있다. 시장화 이후 여성들은 장사와 생계 활동을 통해 가족경제를 책임져 왔다. 반면 남성들은 공식 직장과 조직 생활에 묶여 실질적 생계 부양 능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아들이 결혼 후 처가 또는 아내 중심 생활로 이동하면서 부모와의 실질적 관계가 약해졌다. 이에 따라 딸, 특히 장녀가 부모를 살뜰히 돌보는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 내 역할 변화는 정치적 상징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북한의 공식 이념과 정치구조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지만, 사회경제적 현실에서는 여성의 역할과 책임이 이미 크게 증대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남성권위주의 사회이므로 여성 최고지도자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단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통치 방식 역시 이 점과 연결된다. 김정은 주변의 핵심 이너서클에는 김여정, 현송월, 최선희, 리설주 등 여성 엘리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노후한 남성 관료들을 불신했고, 자신의 통치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성 또는 여성적 이미지의 충성형 엘리트들을 중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김정은의 통치 리더십은 일정하게 ‘여성친화적’ 성격을 보인다.

따라서 김주애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정은 정권의 독재정치 내구력, 당 중심 통치 체계, 국가가부장 담론, 여성 역할 증대, 미래세대 포섭 전략 등을 종합하면 여성 후계자의 등장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4. 4대 세습의 기정사실화와 김주애의 후계자 수업

김정은 정권은 최근 ‘계승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2025년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실현”했으며 “계승성이 확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계 문제를 포함한 영도 체계의 기본 기조가 4대 세습으로 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6년 3월 11일 주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개발된 신형 권총을 사격하는 김주애〉

김주애의 공개 행보도 이와 연결된다. 그는 군사, 외교, 경제, 민생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 왔다. 이는 단순한 가족 동반이 아니라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에게 김정은 이후의 계승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김정은의 자녀 중 가장 공개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인물은 김주애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군 내부에서 김주애에 대한 호칭과 서사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탈북한 군인 출신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군관과 장령들 사이에서 김주애는 “존경하는 자제분”, “셋별 여장군”, “향도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일반 군인들 사이에서도 김주애라는 이름이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군 내부 학습 자료에서는 김주애가 “컴퓨터 천재”로 묘사된다고 한다. 김주애가 국방과학원이나 핵무력 관련 현장을 김정은과 함께 돌아보고, 첨단 과학과 핵무장력 발전에 동참한 천재적 인물로 선전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 등장하기 전 군 내부에서 천재적 군사능력을 가진 인물로 우상화되었던 방식과 유사하다. 김정은에게 어린 시절부터

사격 능력이 뛰어났다는 식의 서사가 부여되었던 것처럼, 김주애에게는 ‘첨단 과학을 선도하는 미래형 지도자’ 이미지가 부여되고 있는 셈이다.

5. 김주애 후계의 우려점

김주애 후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안정적이거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김주애 후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우려가 존재한다.

첫째, 혈통 승계의 지속가능성 문제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개척한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경우, 그다음 5대 세습에서 김일성 가계의 부계 혈통 계승 논리가 약화될 수 있다. 북한식 권력 논리에서 여성은 ‘결가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백두혈통 승계 서사의 지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사망 이후 통수권 문제이다. 김정은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가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명할 경우 공개적 반발이 어렵다. 북한 체제에서 후계자 결정은 결국 수령의 결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사망 이후 김주애가 실제로 군 통수권과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단계에서는 내부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군부와 고위 엘리트들이 여성 지도자의 통수권 장악을 회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또한 4대까지 이어지는 세습 자체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도 누적될 수 있다.

셋째, 김주애의 반인민적 이미지이다. 북한 매체에 등장하는 김주애는 화려한 옷차림, 세련된 머리 스타일, 부유한 외형을 가진 인물로 비친다. 그러나 이는 경제난과 생활고를 겪는 일반 주민과 군인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일부 주민과 군인들은 김주애의 이미지가 “겸손하지 못하고 수수하지 못하다”라고 느낀다. 김주애가 일반 서민의 삶을 전혀 모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존재로 보일수록, 주민들 사이에 거부감이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4대 세습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수령독재체제이며, 김정은이 결심하면 4대 세습은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당성 없는 세습이 더욱 고착화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6. 결론: 김주애보다 중요한 것은 4대 세습에 대한 평가이다

김주애가 북한의 차기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김주애의 나이, 공식 직책 부재, 김정은의 다른 자녀 가능성, 북한 내부의 남성 중심 문화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김주애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은 커졌고, 딸이 부모를 돌보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 방식 역시 여성 엘리트뿐 아니라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지의 엘리트들을 적극 활용해 왔다. 또한 군 내부에서 김주애를 ‘샛별 여장군’, ‘향도자’, ‘컴퓨터 천재’로 묘사하는 이상화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후계자 수업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주애 개인의 성별이 아니다.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혈족 세습을 반복하고 있다. 2대 세습과 3대 세습을 넘어 이제 4대 세습까지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의는 “김주애가 딸이냐 아들이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핵심 질문은 “북한의 4대 세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이 북한 체제의 성격과 향후 안정성, 주민 인식,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결국 김주애 현상은 북한의 후계 문제인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체제 재생산 전략이다. 김정은은 김주애를 통해 미래세대, 여성, 가족, 과학기술, 핵무력, 백두혈통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후계 상징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상징은 동시에 북한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다. 인민과 사회주의를 말하면서 혈족 세습을 지속하는 체제, 여성과 미래를 내세우면서 주민의 생활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체제, 계승을 강조하면서도 정당성 위기를 안고 있는 체제가 바로 현재 북한의 모습이다.

따라서 김주애 후계 문제는 단순한 인물론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정치적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딸도 후계자가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4대 세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이다. 

‘김주애’선전, 행간 읽기: 은폐와 시선교란의 이중 전략¹⁾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2022년 11월, ‘김주애’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직후, 구글의 ‘북한’ 연관 검색어 1, 2순위는 모두 ‘김정은 딸’일 정도로 외부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간 북한이 지도자 가계, 특히 어린 자녀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삼아왔기 때문에 관심이 더 증폭되었다. 그리고 이 이례적 사건은 지난 4년을 거치며 점차 일상이 되었다. 성장 과정, 표정, 몸짓, 옷차림 하나하나가 리얼리티 쇼처럼 전 세계에 중계되었고, 김주애는 외부세계에서 북한을 표상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 외부 세계의 인식도 전보다 무뎠다. 초반에는 세습 가능성, 주민 생활과 대비되는 호화로운 옷차림 등에 대해 비판이 컸지만 반복적 노출 속에서 설왕설래는 가랑비에 옷 젖듯 잦아들었다. 한 전문가는 전 세계를 향한 북한의 ‘가스라이팅’이 이뤄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²⁾ 최근 우리 정보당국은 국회 보고에서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본다고 밝혔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제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이 선전에 숨겨진, 후계자 이미지 이상의 메시지다.

모두가 알고 있듯 북한당국은 선전에 능하다. 선전에는 동전의 앞면처럼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한다. 주장하는 바를 강조하면서 그 이면은 감춰야 한다.

그래야 이상적인 연출이 가능해진다. 그런 면에서, ‘김주애’ 선전은 현실을 일부 은폐하면서 정권의 이상을 마치 현실처럼 그려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김주애=후계자’ 이상으로 북한당국이 주장하고 또 숨기려 했던 진실들은 무엇일까?

의도적 침묵으로 빚어낸, 가상-실재 ‘김주애’: 관심 끌기와 부끄러움 감추기

북한당국이 보여주는 ‘김주애’는 김정은의 물리적 자녀(실존하는 현실)인 동시에 연출된 캐릭터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가상과 실재가 구분할 수 없이 뒤섞인 존재를 ‘시뮬라크르(simulacre)’로 정의했다. 그는 권력이 특정한 시뮬라크르를 만들 때에는 “갓지 않은 것을 가진체하기”의 정치학이 작동한다고 지적했다.³⁾ 북한당국에게 김주애는 말하고 싶은 바를 강조하고 감추고 싶은 바를 은폐하게 해주는 시뮬라크르인 셈이다.

지난 4년간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김주애에 대해 밝힌 바는 거의 없다. ‘그저 김정은이 ‘사랑하는 자녀’, 혹은 (인민이)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만 언급될 뿐이다. ‘주애’라는 이름도 방북했던 외국인들과 고위급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북한당국의 이러한 의도적 침묵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전 세계 관객의 관심을 ‘후계자 여부’라는 한 지점으로 집중시킨다. 후계자냐 아니냐를 갑론을박하다 보면 시선은 교란되고 북한당국이 동시에 송출하는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한 주민의 삶, 북한이 처한 대내외 현실은 부지불식간에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김주애가 처음으로 등장한 2022년 11월의 대내외적 환경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주민의 생활은 코로나로 크게 피해를 겪었고 당시는 코로나를 막 벗어난 시기였다. 북한 내부적으로 2022년 4월부터 전염자 수가 급증하였고 전역에 주민 이동 통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북한당국은 방역전쟁 ‘승리’를 선포했다. 그러나 북중 접경은 이미 2020년부터 봉쇄되어 3년간 주민 생계유지는 매우 어려웠다.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게 의존하며 특히 주민 생필품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다. 식용유, 휴지, 조미료, 쌀, 약품, 옷, 중고 차량과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많은 상품이 중국산이다.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 북한 내 경공업 생산은 에너지와 원자재 문제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당시를 겪고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초적 생

1) 이 글은 다음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박민주·박혜주, "시뮬라크르로서의 리설주 김주애: 은폐와 시선교란의 북한적 기호학" 인문사회과학연구 24, no.3 (2023), pp. 339-367.

2) 박영자, 2026년 북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 2026년 1월 2일.

3)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옮김, 『시뮬라시옹』, 민음사, p.19.



〈사진1. 북미 회담 결렬 직후 수심에 찬 김정은의 모습⁴⁾〉

계유지가 힘들고 질병보다 식량문제가 훨씬 심각했다고 한다. 생필품 가격을 결정짓는 환율은 4~5배가 올랐다. 게다가 북한당국이 코로나 감염 방지를 명분으로 시장을 폐쇄하면서 많은 주민의 수입이 끊겼다. 2022년 11월은 이 엄청난 코로나 전쟁을 끝냈다고 북한당국이 선언한 직후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비상상황이 끝나고 현실을 되찾아가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하노이 노딜이라는 실패의 추억을 완

벽히 지워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은 2019년 여름 북미정상회담 이후부터 모든 대외활동을 대폭 축소했다. 북한의 대미 협상 실패는 당시 큰 화제가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예상보다 빠르게 잊혀져 갔다. 그러나 북한당국에게 2019년의 북미 회담 결렬은 충격이 컸다. 결렬 직후 베트남에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던 김정은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사진1). 하노이 회담 차 평양을 출발하던 김정은을 많은 북한 주민이 환송했을 정도로 출정은 호기로웠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바, “최고 존엄”에 금이 간 것이다.

북한 통치 체제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한 번 뭉개진 자존심은 언제든지 시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회복하려 한다는 점이다.⁵⁾ 북한당국 입장에서, 정권에 대한 주민의 충성심을 최대한 티나지 않게 강화하면서 또 하노이 노딜의 실패를 덮을 만한 더 큰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3년간의 팬데믹이 이 실패를 일시적으로 가려 주었지만, 봉쇄 해제 이후 북한당국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덮을 새로운 이슈가 필요했다. 그 대답이 바로 '김주애'라는 시물라크르다. 실패와 권위 실추의 부끄러움, 주민 생존의 어려움을 감추는 대신 권력의 굳건함, 지도자의 좋은 면모, 주민이 따라야 할 충성의 모범을 동시에 연출하기에 그만한 선전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김정은 ‘어버이’만들기 : 김주애의 ‘어버이’에서 ‘인민의 어버이’로

김주애의 옷차림은 김정은·리설주와 유사하며(Similar look) 자기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모양새다. 특히 처음 주석단에 등장한 2023년 군 창건 75주년 기념식

에서 김주애와 김정은은 김일성이 자주 입었던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검정 코트와 검정 모자를 착용했다. 북한에서는 쉽게 구하기 어려운, 흔치 않은 스타일의 옷이다. 그리고 3개월 뒤 김주애는 김정은의 인민복과 유사한 흰 블라우스 차림으로 나타났다. 당시 외신 일부는 김주애의 디올 외투가 논란이 되자 저렴한 블라우스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보다는 여성이 인민복을 입지 않는 북한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연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블라우스는 리설주가 ‘(인민의)어머니’로 호명될 때 옷차림과 매우 유사하다.⁶⁾ 사실 김주애는 얼굴 자체가 이미 부모와 많이 닮아서 가족임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굳이 시각적 유사성과 어른스러움을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물론, 김정은-김주애가 김일성과 유사한 옷을 입고 주석단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혈통에 기반한 세습을 정당화하는 작업이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열병식에서는 “자제분”의 백마가 김정은의 백마를 따른다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북한에서 ‘백마’란 최고지도자를 상징하기에, 이는 혈통세습의 메시지를 함의한다. 다만, 이 혈통 세습의 상징이 끝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이 이 장면에서 직접 드러내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김정은(부)·리설주(모)·김주애(자녀)의 ‘가족’ 이미지를 통해 현재 김정은 리더십의 안정성을 강조하려는 논리다. 북한에서 수령은 곧 ‘어버이(아버지)’여야 한다. 이런 선전 자체가 김정은과 리설주가 주민들 사이에서, “인민의 어버이”는커녕 여전히 ‘미숙한/어린’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김정은은 화폐개혁으로 민심이 추락한 상황에 갑자기 등장했고, 갓 직장에 배치받은 사회초년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인민의 영도자’ 타이틀을 차지 했던 김일성, 오랜 기간 후계자로 나섰던 김정일과는 다르다. 또한 선대와 달리 김정은 집권기에는 외부 정보 유입이 이전보다 증폭되었고 배급제와 각종 무상제도 역시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다. 후계기간이 짧고 화폐교환 직후 등장했던 탓에 주민들의 신뢰도 높지 않다. 상황은 더 열악한데 개인 카리스마를 쌓기도 어렵다 보니 김정은과 북한당국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무엇이랄도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선대 시절과 분명하게 대별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 당 대회를 정례화하고 잦은 헌법과 법률 개정을 통해 자신의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법률에 권력을 명시해 버림으로써, 반발이 등장할 경우 외부에는 ‘내정간섭’으로, 내부에는 ‘불법’으로 대응

4) 김효정, 「호찌민묘 찾은 김정은, 얼굴에 수심가득…동당역선 웃으며 작별(종합)」, 『연합뉴스』 2019년 3월 2일.

5) 상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황일도, 『(핵, 장사정포,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 군사전략의 DNA』, 플래닛미디어, pp. 209~214.

6) 리설주 우상화 작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참조. 위의 글, pp. 351~354.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단기간 살을 찌우는 등 비교적 지지도가 높았던 김일성의 외양을 적극 재현하고 할아버지처럼 주민들과 스킨십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한다. 북한은 상징, 의례가 중요한 사회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채워나가는 작업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또래보다 성장도 빠르고 옷차림도 성숙한 ‘자녀’ 김주애의 투입은 김정은과 리설주를 유교적 ‘어른’으로 만드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이 셋이 상연하는 ‘가정’ 이미지는 가상-실재의 경계를 흐리면서 북한 사회가 김정은이라는 국가 가부장의 지배를 받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김정은의 생물학적 부성(父性)을 인민의 아버지(아버지)로 전환하는 작업인 셈이다.

‘자애로운 지도자-아버지’와 순종적 자녀의 모습 연출하기: 가상과 실재의 혼재

김주애 상징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이다. 김주애는 ‘사랑받는 딸’, 나아가 ‘아버지를 웃음짓게 하는 딸’의 이미지를 연출해 낸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장성들을 익숙하게 하대하다가도, 김정은 앞에서는 손을 꼭 잡고 볼을 만지며 눈을 맞추고 김정은을 ‘웃음 짓게 하는’ 유아기적 모습을 연출한다.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모습과 권력의 서열을 명확하게 간파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공존한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성인을 모방하고 있는 최근에도 이런 연출은 지속된다. 2025년 12월 31일 열린 신년경축공연 중 자정이 넘어 해가 바뀌었다. 주석단에 앉아 있던 김정은이 표정으로 시그널을 보내자 김주애가 일어나 김정은 볼에 뽀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사실 이 장면은 통상적이지 않다. 세상 어느 14살이 아버지 볼에 뽀뽀를 하겠는가? 북한도 청소년 세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김주애 또래인 고급중학교 1학년 학생(14살)들도 적지 않게 연애를 한다. 게다가 북한은 부모자녀 간의 애착이나 애정표현이 활발하지 않은 문화적 특성이 있다. 이에 비춰보면 김주애의 행동은 북한적 맥락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김주애의 활동은 ‘녹화중계’, 즉 녹화 후 편집본을 전역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여기서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국가) 가부장에 대한 순종과 감정노동은 가부장제 사회가 특히 여성과 자녀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임무다. 특히 ‘격무에 지친’ (국가) 가부장을 위한 감정노동은 모두가 실천해야 할 사회적 미덕으로 강조된다. 그런 의미에서 김주애는 카리스마를 내보이거나 남성처럼 옷을 입고 절도 있게 행동하기 보다 적당히 여성성을

숨기지 않는 차림새와 행동을 취한다. 외부세계 일각에서는 남성 중심의 북한 사회에서 김주애의 옷차림과 행동은 후계자로 적합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분석한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다만, 북한에서 권력의 핵심은 성별보다 ‘유일자배(도)’의 인정을 받느냐 못받느냐의 문제다. 북한적 논리에서 김주애의 성별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다. 북한당국은 김주애가 어린이 시절에는 해맑게 아버지의 피로를 해소해 주고 성장해서는 업무를 돕는 가장 충성스러운 존재로 그려내고 있다. 김주애를 김정은이 ‘가장 사랑하는 자제’라거나 주민들이 ‘존경하는’ 대상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례다.

동시에, 김주애가 발산하는 ‘충-효’ 시그널의 최종 목표는 김정은을 ‘자애로운 아버지’, ‘애민의 지도자’로 포장한다. 김정은은 김주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 행동이 다르다. 김주애가 함께 있으면 평소와 달리 화도 내지 않고 자주 웃으며 살뜰하게 딸을 챙긴다. 이런 ‘딸바보’ 이미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에게 득이 된다. 흔히 볼 수 있듯 정치인은 이미지 세탁을 위해 어린이를 활용하는데 김정은은 한 차원 더 나아가 실제 자기 딸을 동반하여 가상-실재의 혼종을 극대화한다.

김주애가 등장한 시점이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하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부터 공포정치를 지속하였고 하노이 노딜 이후 시장 경제를 다시 압박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보수화했다. 주민통제와 주민 생계의 어려움은 COVID-19 시기 극에 달했을 뿐,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주민 생활은 최악의 상황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직접 말할 수 없지만 김주애라는 시뮬라크르를 통해 ‘사회주의 대가정제의 자녀, 곧 인민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은근한 메시지를 던진다.

더불어 북한당국은 김정은-김주애 사이의 ‘권력/보호-감정/순종’ 교환논리가 “사회주의 대가정”에서도 통용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수많은 공민(자녀)들에게, 김주애처럼 ‘순수’하게 김정은(아버지)를 믿고 따르면 김주애가 받는 것과 같은 보호와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설득한다. 김주애를 향한 “존귀하신, 존경하는” 등의 수식어들은 그가 “따라 배울” 모범적 대상임을 의미한다. 특히 김주애가 독자적 존재가 아니라 김정은의 딸로서 등장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는 김정은의 ‘자애로운 아버지’ 이미지를 구성해 주는 카운터파트로서, 2차적으로는 ‘충성스러운 인민-자녀’의 모델로서 활용된다.



〈2026년 1월 1일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장에서 딸 주애의 볼 뽀뽀를 받는 김정은 위원장〉

‘핵 무력 + 여아’에 의존하기 : 불안함의 극복과 자존심 회복

보드리야르는 시물라크르의 한 사례로, 히로시마 이후 핵은 상대를 살상하기 보다 핵을 지닌 스스로를 잠식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호라고 분석하였다.⁷⁾ 핵은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켜 결국 적도 나도 파국에 이르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처럼 핵이 갖는 상징적 위력은 김주애 선전에서도 활용된다.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고 또 그간 가장 많이 등장한 공식 석상은 군, 특히 핵 무력 현장이다. 북한당국은 군사 우선(先軍)을 통치 이념 삼고 남성을 1등 군인으로, 여성은 그 뒤치다꺼리를 책임지는 존재로 여겨왔다. 그런데 그 군사 정치의 정점인 핵 무력 현장에 여아가 등장하고 있는 이 이례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모순적 상황은 ‘최고존엄’체제 영속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노이 노딜에서 훼손된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활용된다. 첫째, 북한에서 후계자나 지도자가 되는 첫 단계는 군 지휘 권한과 군부 지위를 받는다. 김주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군부 직함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직함만 없을 뿐, 핵/미사일 부문 책임자들이 김정은 앞에서 김주애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장면은 ‘충성맹세’ 그 자체다. 물론 김주애보다는 김정은을 향한 맹세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장성택을 비롯해 많은 간부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숙청해 왔다. 그런 면에서, 군부는 김정은에게 독이자 성배다. 김주애에 대한 군 장성들의 깃듯한 모습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가늠해 보는 일종의 장치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의 핵은 ‘안전’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대대손손 물려줄 것임을 대내외에 표방한다. “가장 사랑하는 자제”, 그것도 어린 자녀를 데리고 현장에 가는 모습은 그만큼 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선전의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한이 그간 주장해 왔듯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주장도 내비치고 있다.⁸⁾ 핵 무기를 갖고자 하는 잠재적 고객들에게는 나름의 상품 CF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김주애가 표상하는 ‘미래세대’가 핵을 통해 ‘사회주의 대가정’을 영속해나갈 것임을 설파한다. 하노이 노딜에서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는 동시에, 북미대화를 염두에 두고 더 이상 북한에게 ‘비핵화’카드를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7) 장 보드리야르, 위의 책, p. 80.

8) 다만 최근의 헌법 개정 동향 등을 보면 핵이 방어용이라는 주장은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셋째, 대안의 두 논점이 주로 대내 선전의 맥락이라면, 2026년 들어서는 대외적 차원의 메시지가 새로운 층위로 추가된다. ‘최고존엄’을 위협하면 보복할 것이며, 그만큼 역량과 후계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선전한다. 최근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김주애의 사격 모습이나 김정은이 간부들에게 총을 선물하는 현장에서 김주애가 이를 돕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2026년 1월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 현장에서 김주애는 지휘관 의자에 앉아 있고 마치 김정은이 지휘를 설명해 주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다. 4년전 아버지 근처에 서 있기만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차세대’ 핵 무력 지휘권자로서 등장한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 직후인 2026년 3월, 김정은은 지하 벙커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김주애를 동반했다. 이른바 ‘핵버튼’이 놓인 책상에 부녀가 나란히 앉아 화상으로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3월 말 열린 제15기 1차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에 대한 외부 공격에 대해 자동 핵보복이 가능하도록 헌법 조항을 신설하였다. 지도자의 미성년 자녀가 무력 실험 현장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일련의 헌법 개정도 인류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그리고 모두가 느끼듯, 이런 과잉의 본심은 불안감이다.



〈2026년 3월 10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

결론을 대신하여

후일 만약 '지도자' 자리에 오른다면, 김주애는 최고 권력자이니 "대가정"의 '아버지'로 불려야 할까, 생물학적 여성이니 '어머니'로 불려야 할까? 이런 난제를 북한당국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김주애를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후계 구도 이전에 더 시급한 무언가—주민의 신뢰, 정권의 정당성, 하노이의 상처—를 덮어야 하는 절박함의 방증이다. 북한당국은 김주애 선전을 통해 민생 대신 핵을 선택했던 전략이 가져온 후폭풍과 주민의 척박한 현실을 회피하면서, 폭압적 통치를 합리화하고 '부성애'로 낭만화한다. 애써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또 애써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선전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진짜 질문은 '누가 후계자인가'가 아니라 '북한당국은 지금 무엇이 그토록 불안한가'여야 한다. 북한당국이 유인하는 방향, 곧 후계자에게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기획된 아이콘, 김주애로 읽는 북한

최 설 (NK 여성경제 연구소)



〈2026년 4월 3일,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구역의 봉사시설 시찰 중 '화성애완동물상점'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

김주애가 애완용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애완견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앉아 있는 김정은 위원장 곁에서도 강아지와 눈길을 맞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이다(2026.4.3). 평양에 신설된 ‘화성애완동물상점’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우연한 시찰 장면일까.

현대적인 애완동물상점 1층과 2층에는 다양한 애완견과 애완묘, 그리고 애완용 토끼까지 전시되어 있었다. 북한 사회에서 애완동물은 오랫동안

사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개인이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면 자본주의 문화 소비자로 타깃이 되어 온 이유다. 애완묘는 더욱 낯선 존재다. 농장마을이나 일부 도시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있지만, 그 고양이는 식량을 축내는 쥐를 잡기 위한 수단이었다. 특히 ‘토끼 기르기’는 군(軍)에 보낼 고기를 확보하기 위한 당 정책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해마다 부과되는 ‘꼬마과제’다. 애완용 토끼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평양에 애완동물상점이 들어서고, 최고지도자가 사료와 관리용품, 수의약품 생산과 판매는 물론, 전문적인 봉사까지 언급한 배경은 무엇일까. 애완동물이 인간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며 반려동물로 자리 잡은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면, 『노동신문』이 공개한 장면은 체제 선전용 전시효과 그 이상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통치 이데올로기가 담아내지 못하는 삶의 리얼리즘이 정서적 불안을 내재하고 있고, 그 불안의 해소가 애완동물 소비로 이어지는 실태를 국가 산업으로 관리함으로써 민심과 세원을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적 의도인 것이다. 그곳에 후계자로 거론되는 김주애가 서 있다.

이에 본고는 북한 사회에서 애완동물의 등장 배경과 확산 과정을 개 사육 시장으로 짚어봄으로써 기획된 아이콘, 김주애 상징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자가소비에서 생계형 사육으로

북한에서 개는 오래전부터 민생 밀접한 가족의 하나였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단층 주택 마당에는 한두 마리 개를 기른다. 평양 외곽의 주택가도 다르지 않다. 개 사육은 별도의 사료비가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이다. 집에서 나오는 쌀뜨물과 음식 잔반으로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강아지는 주로 농민시장에서 구입했다. 농민시장은 1958년 내각 결정 140호에 따라 각 지역에 설치된 농축산물 거래 장터다. 전후 농업협동화 정책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시장이었다. 매월 1일, 11일, 21일과 같은 농민들의 휴일에 열렸으며, 도시 주민과 농민이 만나는 접점이기도 했다. 강아지도 이곳에서 거래되었다.

도시 주민들이 개를 기른 목적은 ‘자가소비’가 주를 이루었다. 가족 중 결핵을 비롯한 만성질환자가 있거나 남편의 기력을 보충해야 할 경우 통개 한 마리를 건강식으로 준비하는 것은 오랫동안 공유된 생활 방식이었다. 개인의 개 사육을 장려한 또 다른 요인은 국가의 수매 체계였다. 1970년대 전국에 설치된 ‘5호관리소’ 5호관리소는 현재까지도 김정은 정부의 비자금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부서를 설치하고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금, 송이버섯, 약초, 개가족 등을 독점적으로 수매 받는 외화벌이 기관이다.

에 개가족을 바치면 품질 등급에 따라 현금이나 설탕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개 사육은 1990년대 식량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자가소비 중심 사육에서 생계를 위한 ‘판매용’ 사육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절과 무관하게 가격이 비교적 일정하였던 강아지 가격에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3~4월 봄철이면 강아지 가격이 가장 높았다. 이는 주민들의 생존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 보통 강아지가 성견으로 자

라는 데 약 6~7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봄에 강아지를 사들여 가을에 판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했다. 가을은 곡물 가격이 가장 싼 시기여서, 개 판매 대금으로 보다 많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봄철에 강아지 두 마리를 구입해 가을까지 잘 길러 판매하면, 그 수익으로 3인 가족의 1년간 소비할 식량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국가의 배급망이 멈춘 자리에서 개 사육은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생계 기능이었던 셈이다.

2000년대 들어 판매용 개 사육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2003년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제도화되면서 열흘에 한 번 열리던 시장이 매일 열린 동시에 국가 명의로 개인이 운영하는 ‘개고기 식당’이 늘어나 통개 수요 또한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자의 날(5.1)이나 단오와 같은 공휴일에는 공장기업소와 외화벌이기지별 체육 경기가 열렸고, 도시에서는 우승팀의 상품으로 ‘통개’ 한 마리를 내거는 것이 관행이었다. ‘오뉴월에는 사람의 발등에 개고기 국 기름만 떨어져도 보약’이라는 보신 문화 때문인지도 모른다.

개 사육은 이제 식량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장사 밀전을 마련하는 수익성 축산으로 발전했다. 그러자면 사료 확보가 중요해졌다. 가정에서 나오는 잔반만으로는 부족했다. 과거 이웃 아파트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었던 음식 잔반에도 가격이 매겨졌다. 잘사는 집에서 나오는 잔반은 걸쭉했으므로 비싸게 팔렸고, 가난한 집에서 나오는 잔반은 쌀뜨물에 채소 떡잎과 뿌리만 떠 있는 묽은 상태여서 가격이 싼다. 음식 잔반을 살 수 없는 집에서는 술지게미 ‘모주’를 먹이기도 했다. 술지게미보다 음식 잔반을 먹고 자란 개는 고기의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좋다고 평가되어 시장 가격도 높게 매겨졌다.

사적재산 보호에서 감시 방어 수단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시장화가 본격화되면서 물류를 전담하는 외화벌이회사와 도매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살림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물자와 자금이 보관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경비가 중요했다. 이 과정에 개의 역할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경비견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된 것이다. 물론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경비견 역할은 중요했지만, 식량난이 극심했던 당시에는 식용이나 생계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 여전히 판매를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주민도 있었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사적재산을 지키는 ‘보안 장치’로 개를 중시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세파토’(독일 셰퍼드)와 같은 군견 종의 거래를 등장시켰다. 세파토 새끼 가격은 일반 강아지보다 열 배 이상 비싸 초기 자본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수요는 꾸준했다. 세파토는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비견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법 당국의 감시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다. 거대한 몸집의 사나운 군견이 단층 주택 마당이나 거실에 버티고 서있으면 ‘숙박 검열’ 명분으로 가택을 수색하려는 경찰도 순간 주춤하게 된다. 주민 동향 감시로 수시로 접근하는 인민반장 접근도 어려워진다. 이에 군견은 주민들 사이에서 국가 감시를 완충하는 기능자로 인기를 끌었다. 점차 세파토는 마당에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시장화 발달과 정서적 공백, 그리고 애완견 등장

주지하다시피 북한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은 기혼 여성들이 비중을 차지한다. 식량배급제가 무너졌음에도 당국이 남성들을 국영노력으로 묶어두고 장사활동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북한 시장화가 진전될수록 여성의 신장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가정 안에서부터 남편에게 가사 노동 분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충성의 야간돌격대’에 동원돼야 했던 남편에게 이러한 변화는 ‘상처’였다. 가장을 통하여 의식주가 마련되던 국가공급시대에 비해 아내의 수입으로 가정이 지탱되는 장마당 시대에는 남성의 권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가정에서 남성의 폭력도 나타났지만, 여성들은 순종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장사 활동이 곧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자의식이 싹 텃기 때문이다

부부 갈등은 불가피했다. 북한 체제를 떠받쳐 온 남성 중심의 젠더 위계 균열이었다. 2005년 당국이 시장을 억제하고 식량배급제 복원을 시도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되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배급 정상화는 실패했고, 시장화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국영 명의 개인 버스와 택시까지 늘어나며 여성들의 활동 반경은 지역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아내의 장사를 돕는 남편도 등장했지만, 가정의 권위를 내려놓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전통적 역할을 고수하려는 남성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여성 사이 갈등은 별거와 이혼이라는 사회적 문제

〈평양 만수대지역에서 북한 신랑 신부가 웨딩 촬영을 하고 있다〉



로 이어지기도 했다.

가족이 흔들리고,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약해지는 곳에서 감정의 굵은 깊어졌다. 여성들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별과 별거로 다가온 정서적 결핍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도시를 중심으로 대가족이 해체되고, 분가 현상까지 확산되면서 노년층의 정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평양을 중심으로 지방 도시로까지 애완견 수요는 이렇게 부각되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북한에서는 흰색 말티즈가 인기였다면, 2020년대에는 ‘밤색 고슴도리 개’라 불리는 ‘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과 무역하는 간부들이 밀수를 통해 품종견을 들여오거나, 암수 한 쌍을 구입해 번식시킨 뒤 달러를 받고 판매하는 애견 업자도 등장했다(2025.6.30). 시장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이제 애완견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밥상 곁에 앉아 식사를 함께하며, 함께 자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도와 지방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전문 서비스와 체계적인 경영 방식을 주문한 것도 이러한 실태를 잘 말해준다(노동신문, 2026.4.03).

기획된 아이콘, 김주애 상징성과 시사점



〈평양 미래과학자 거리에서 한 여성이 개를 안고 걷고 있다(사진=AP)〉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주민들의 개 사육 역사는 단순한 생활 문화의 변화가 아니다. 자가소비에서 생계형으로, 다시 경비용 사육으로 확장된 과정은 경제 구조와 가족 질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 그 중심에 ‘생존’이 있었다. 그러나 애완견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인간과 정서적 관계를 맺고 사는 애완견의 존재는 개인의 불안을 넘어 사회적 불안을 위로하는 대상으로까지 부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단 체제보

다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중시하는 대중문화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령 신격화가 무너지고 있는 대중 심리가 북한 사회 깊숙이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도 평양에 애완동물상점이 신설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세포로 일컫는 가족의 기능이 약화된 그 자리에 애완견이 들어왔다. 국가는 더 이상 이러한 문화를 통제의 대상보다 제도화해야

할 산업 영역으로 인정하였다. 주민들의 변화된 욕구를 전략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을 인지한 셈이다.

2022년부터 김주애가 등장한 배경과도 맥락이 이어진다. 대중 정서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재구성하는 데 김주애 효과는 어떤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김주애는 미인이 아니다. 평범한 그 모습은 시장 주체로 활동하면서 가정 내 영향력을 갖고 있는 평범한 여성들에게 장벽을 허문다. 낯설지 않은 그의 존재는 가부장제가 약화되면서 딸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분위기에 안성맞춤한 아이콘이다. 특히 김주애는 ‘미래를 상징하는 딸’이라는 정서적 공감대와 동시에 북한의 MZ 세대 이미지와도 연결된다.

북한 매체가 군 장성들과 앉아 있거나 경제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최고지도자보다 앞서 걷는 김주애의 모습까지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이 모습은 독재자로 비춰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평범한 아버지로 치환하여 ‘인민의 아버지’로 확장시키며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주입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김주애는 주민들의 욕망과 불안을 체제 안으로 묶어두기 위해 기획된 아이콘이다. 🐶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6화

저는 잡혀 들어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처음 중국 땅을 밟았을 때와는 달리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평생 살 생각이 아니라 가족들을 살릴 돈을 마련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깨끗한 마음이었기에 양심에 거리낌없이 지체하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남양에서 도문으로 건너가자마자 우리는 도문교회를 찾아 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도문교회 장로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장로님은 저를 목단강으로 가는 기차에 태워 보내고 목단강에 김 전도사라는 분께 연락해 역전에서 팻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나타나지 않자 전도사님께서 기차의 종착역인 하얼빈까지 올라가 저를 찾아 해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찾지 못하자 제가 필요한 것만 얻고 도망친 것이라고 여겨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차에서 잡혀 변방 감옥에 갇혔다가 복송된 후에 탈출해서 다시 나왔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장로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때마침, 목단강에 저를 연

결해 주려고 했던 문영선 목사님이 마침 도문에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문 목사님께 전화해 제가 도문에 왔다는 것을 알려셨습니다.

문 목사님께서 도문에 계셨던 이유는 북조선에 있던 자신의 조카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 돌아가신 그 어간에 북조선에서 조카가 삼촌(문 목사님)을 만나러 중국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카는 북한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까나리를 한 가방 챙겨 나와 장사한다는 명목으로 잠시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 삼촌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급하게 다시 중국으로 오셨고, 도문에 머물면서 조카와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문 목사님은 심부름꾼을 써서 돈과 옷가지를 조카에게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던 저는 목사님을 도문에서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 목사님을 만나 뵈기 전, 첫도강 당시 저와 함께 강을 건넌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농촌 촌장님 집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문영선 목사님을 뵈었을 때는 상당한

고령의 노인이셨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이신 목사님은 김일성이 신앙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월남해서 미국으로 가셨고 은퇴 후에는 북한을 마음에 품고 중국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나 뵈었을 당시에는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들어가 치료받지 않으시고 계속 중국에 계시며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아사자가 수백, 수천 명씩 나올 때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곧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쉴 틈도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저의 끝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 목사님은 저와 친구를 보시고는 대중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시며 필요한 경비를 쥐여 주셨습니다. 말끔하게 씻고 다시 목사님이 계신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북한에 있는 조카에게 짐을 보내려고 하니 제 아내가 도와주면 어떨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아내를 데리고 올 때에도 오래 중국에 머물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계획은 어려웠습니다. 돈은 목사님이 알고 지내던 한 열차 승무원의 남편을 통해 북한에 있는 조카에게 보내고, 옷가지는 아내의 등에 지워서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넘어가다 걸리면 뇌물을 고여서 빠져나오라고 중국 돈 400원도 따로 챙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아내의 팔에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만나면 이 아줌마에게 중국 돈 천원을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돈이라면 얼마 동안 우리 가족들의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강기슭에 숨어서 아내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있으니, 아내가 강을 건너 동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동네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사히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아내가 아닌, 돈을 전달하던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께서 조카에게 보내기로 한 돈을 자신이 다 꿀꺽하고 싶은 욕심에 해관에 가서 목사님의 조카를 신고하고 본인은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아내는 남양 숙소에 옷가지를 두고 미리 받은 조카분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팔에 편지 쓴 것을 보여주며 자신은 옷가지를 가지고 왔고, 해관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카분이 해관으로 가는 길에 사복을 입은 보위부원들이 양쪽에서 그를 둘러싸 체포하였고, 이를 목격한 제 아내는 급히 피해 달아났습니다.

아내는 숙소로 돌아와 중국에서 가지고 온 옷가지를 들고 청진으로 떠났습니다. 원래 타려고 했던 열차가 있었지만, 아내를 돕던 제 친구가 “형수님, 저 기차는 타지 맙시다.”라고 말했고, 일반 여객 열차 대신 중국에서 들어와 청진까지 가는 화물 기차를, 뇌물을 주고 얻어 타 청진까지 갔다고 합니다. 후에 보니 문 목사님의 조카가 자신이 만났던 제 아내에 대해서도 실토했는지 보위부원들이 기차를 수색했지만, 일반 기차를 타지 않아 다행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문 목사님이 보낸 옷가지를 팔아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들은 문 목사님은 매우 분개하시고 속상해하셨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은 내가 잘못이다”라고 자책하셨지

“남으로 韓과 접해”... 北,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2국가’ 개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5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업적을 덜어내면서 서문의 통일 위업 기술도 모두 없어졌다. 대신 김정은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서문에 명기됐다.

또한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선언한 ‘두 국가 관계’ 노선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나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다.

기존 헌법에 있던 ‘제국주의 침략자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 등과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사라졌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대폭 강화됐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책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이 사라져 명목상 견제 권한도 폐지됐다.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등 현실과 괴리된 사회주의 무상 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혁명투사’, ‘영예군인’ 등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군사작전 참전 열사’가 신설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예우를 명시한 것이다.

대외정책 조항에서는 기본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에 더해 ‘국익수호’가 ‘불변의 원칙’으로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조항 구성과 표현 수위로 볼 때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참고: 연합뉴스, 5월 6일) 📰

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시며,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달래시는 안타까운 목사님의 모습을 저희는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문 목사님을 따라 목단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집에 언제까지고 있을 수는 없어 해림시(구 해림현)에 있는 북라고 조선족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그 교회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새벽예배를 드리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외치며 난리를 피우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 이 사람들이 49호가 아닌가 했습니다. 49호란 북한 보건복지 의료법에 정신병자 관리 내용이 담긴 번호여서 북한에서는 정신병자들을 부를 때 49호라는 은어로 부르곤 합니다. 정말 황당한 장면에 놀랐지만 문 목사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배 잘 참석하라고 권면하시고 저랑 친구를 그곳에 남겨두고 다시 목단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북라고 교회는 전도사가 없이 권 집사라는 책임 집사가 담당해서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이 종종 왕래하시며 교회를 돕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1년이 넘게 계시며 신앙 훈련을 받으시고 집사 안수까지 받으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남아 있는 아버지 사진을 보니 배를 굶아 뼈쩍 말랐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통통하게 살이 찐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는 사람들이 혹 신고할 수도 있으니 북한 사람임을 알리지 않고 조선족으로, 권 집사의 동생으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마침 두 사람이 생김새도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곳에서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지역 교회들이 함께 모여 찬양올동대회를 열었는데, 원래 음악을 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열심히 참여하셔서 덕분에 북라고 교회가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갖고 닦은 음악 솜씨를 뽐내셨을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생활은 저에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저에게 잘 대해주셨지만, 웬일인지 교회 책임자였던 권 집사께서 저를 볼 때마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라고 교회로 이동할 때 아버지께서 감옥에서 말씀하신, 중국에 남겨두셨다는 돈과 옷 이야기를 문 목사님께 여쭙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전혀 듣거나 아시는 바가 없으셨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신 문 목사님은 아버지랑 같이 지냈던 권 집사에게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권 집사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이야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이 이야기를 종종 다시 꺼냈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지겨울 수도 있지만, 제가 다시 중국에 나와 목단강까지 온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것을 찾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꺼내도 목사님도, 권 집사도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예배를 마치고 건물 바깥에 위치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권 집사를 마주했습니다. 저를 본 권 집사는 저를 불러 세우고는 갑자기 아버지께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래 한국으로 가시려고 했다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계속) 📖

北, ‘적대국가’ 선언 후 첫 방남… 체육교류로 대화 물꼬 틀까



〈5월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선수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과 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 남쪽 땅을 밟았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5개월 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방한한 내고향 선수단은 선수 23명, 스태프 12명 등 총 35명이다.

내고향 팀의 방남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이자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전쟁 중인 상황에서 '내고향'팀을 교전상대방 지역에 보내는 셈이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AFC라는 국제 스포츠 기구가 주도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북한이 ‘국가 대 국가’라는 원칙을 고수한 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축구와 레슬링, 수영 등 두각을 드러내는 종목에서 국제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이런 기

조하에 남측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를 결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9월 적대국인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도 북한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고 대규모 선수단 파견을 예고한 상태다.

비록 남북 당국 간의 직접 교류는 아니지만, 그동안 남북관계 주요 고비마다 스포츠가 남북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남북 대화의 재개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그간 남측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불참을 통보해왔다. 지난해 9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양궁 선수권대회에는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아, 남북한 간의 스포츠 교류가 여전히 단절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지난 5월 17일 수원FC위민과의 준결승에서 승리한 후, 23일 결승전에서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를 꺾고 아시아 여자 클럽축구 우승을 차지했다. (참고: 연합뉴스, 언론보도 종합)

“평양 달리는 노란색 번호판… 北 자가용 시대 진입”



〈올해 SNS에 올라온 평양의 자동차 모습. 5자리 평양 번호판을 단 차량(왼쪽)과 교통 체증 현상(오른쪽)이 눈에 띈다 (출처=SNS, 로이터 재인용)〉

북한에서 자동차 소유 규제 완화, 중국산 수입 증가로 평양에서 주차난, 교통 체증 같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는 진단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5월 12일(현지시간) 평양을 촬영한 위성 이미지, 소셜미디어(SNS) 게시 사진을 분석하고 평양을 방문한 관광객·사업가 등을 인터뷰해 늘어난 자가용으로 평양의 거리 풍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차들은 파란색이나 검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국가나 군이 소유한 차량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 평양 시내에서 개인 소유 자동차임을 알리는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최근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북한 내 자가용 급증은 관련 법 개정의 영향이 크다. 북한은 2017년부터 노란 번호판을 단 자가용 소유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차량 등록은 사업소나 기관 명의로만 가능해 사실상 법인차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난 2024년 자가용 소유 관련 법을 개정, 개인이 자가용을 소유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규제가 자리 잡고 유엔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중국을 통한 자동차 밀반입을 점차 늘리기 시작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들여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지만,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용 타이어 대북 수출량은 지난해 기준 19만3천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평균 88% 증가했다. 자동차 유탄유·그리스 수출량도 같은 기간 150% 늘었다.

지난 10월 평양을 방문했던 싱가포르 출신 사진작가 아람 판은 “평양 내 주요 도로에서 차들이 많아지며 병목 현상이 목격됐다”며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100대 이상 봤고 대부분 중국 브랜드 자동차였다고 말했다. 평양 시내를 촬영한 SNS 사진에서는 5자리 번호판을 단 차량이 확인됐다. 등록 자동차 수가 1만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추세 속에 평양 내 여러 호텔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들어차 있으며 복합상업시설 건설이 진행되는 락량구역에도 차량이 빠르게 주차돼 있다고 말했다. 한 사업가는 아직 평양에 전기차 인프라가 아직 제한적이지만 전기 택시용 충전소도 설치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참고: 연합뉴스, 5월 13일)

1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정된 헌법에는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조항이 신설되고 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국무위원장에게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을 명기하고 명목상의 견제 사항마저 폐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을 살펴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는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어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기정사실화 되는 북한의 4대 세습, 그리고 핵무력을 다음 세대로까지 전수하려는 북한의 모습은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40대 초반에 불과한 김정은이 아직 10대 초반의 딸에게 후계 수업을 하는 상황 이면에 자리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살길은 권력의 세습이 아닌 회개와 변화일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든, 북한이 권력 세습에 집착하기보다 회개를 통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갇혀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소식은 우리에게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류 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 교회 성도와 강제 북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교회 성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북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 증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작전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모두 경제난과 오랜 독재 통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반발로 국내 정세가 혼란한 중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사태를 통해 서민 경제를 챙기고 주민들의 권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북한이 그간 시행한 강력한 외래문화 통제와 함께 ‘사상 개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시사하였는데, 이러한 기조가 주민들의 권리를 더 침해하진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예배의 자유를 포함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최근 한창 모내기가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북한에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는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원도 안변군에서는 5월 16일, 예년

보다 한 달 빠른 고온현상이 일어났다고 북한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열악한 수리시설과 낙후된 시설로 인해 북한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올해에는 북한에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보릿고개 시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6 북·중·러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베이징-평양 여객열차 운행이 3월 12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중국발 북한 관광도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들립니다. 공공 얼어붙었던 북한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북·중·러 협력이 더 많은 북한 출신 영혼들과의 접촉점 확대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북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착취가 중단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7 해외 북한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이 이번 여름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북중 국경을 방문하는 여행팀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러시아는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을 억류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박 모 선교사님을 체포하여 억류 중에 있습니다. 북한과 주변국 간의 밀착 관계 속에서 선교 현장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선의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특히 갇힌 선교사님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8 제3국 탈북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에 대한 북송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기심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탈북 여성들을 모함하고 신고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여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여성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여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계획이 무산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이를 위한 창의적인 사역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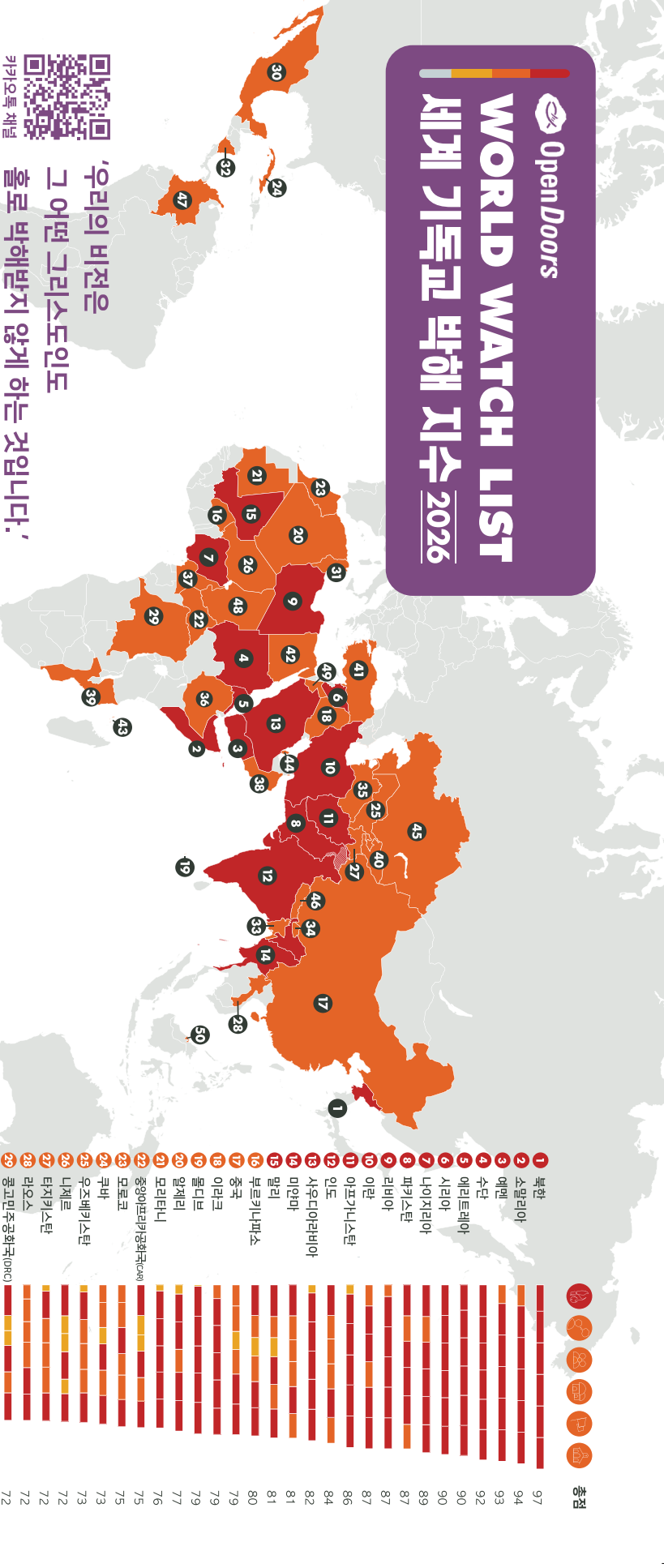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6년 5월 29일

OpenDoors WORLD WATCH LIST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6



‘우리의 비전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홀로 박해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국가 목록에 대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오픈도어의 분석가들이 150개국 현지 전문가들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압박을 추적하는 점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다. 이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신앙 생활의 5개 영역에서 박해의 정도를 측정한다.

폭력 개인 생활 가족 생활 공동체 생활 국가 생활 교회 생활



각 항목의 최대 점수는 16.7점이며, 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총 최대 점수는 100점이다.

각 국가의 순위는 100점 만점 중 해당 국가의 총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박해 정도

● 높음 ● 매우 높음 ● 극심함
4.1-60점 61-80점 81-100점

목록에 포함된 모든 국가는 기독교 박해 수준이 '매우 높음' 또는 '극심함' 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 내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의 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